

조계종복지재단, 최대 법인으로 성장중

세종시 종합복지지원센터 등 올 초만 6개 수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올해 벌써 6개 산하시설을 새로 수탁하며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이 중에는 사업비 387억이 투입돼 올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세종시 종합복지지원센터도 포함돼 있다.

먼저 4월 1일 개관 예정인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 어린이집 지원과 보육교사 교육을 전담하게 되는 곳. 학부모들을 위한 전문 육아상담과 정보 제공 외에도 영유아 놀이 체험시설 및 장난감·도서도 대여한다. 한마디로 지역 내 영유아 보육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라 보면 된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76개가 운영 중이지만 재단에 위탁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24교구본사 선운사가 운영 지원 사찰로 나서며 일부에서는 선운사가 인근에 건립 추진 중인 불교종합타운과 함께 포교사업의 거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재단은 3월 19일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도 참여했다. 복지관 운영권이 기존 기독교계 재단에서 조계종으로 넘어오면서 재단은 인천 지역 불교 복지의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지역에서는 목5동 어린이집 외에도 금천구 사랑채노인요양원, 마천복지관 등을 새로 운영할 예정이거나 운영중이다. 이중 목5동 어린이집은 서울 양천구에 들어설 목5동통합청사 가 보금자리가 될 계획이다. 청사는 어린이집과 도서관, 주민센터 등 문화복지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재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확대된 셈이다.

대외적 평가는?

현재 175개 산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은 올해 예정된 재위탁 심사를 통과하고 추진중인 신규 위탁건도 원활히 진행된다면 산하시설 개수가 2백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일법인으로는 전국 최대 개수라는 재단 측 설명.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0년 사회복지법인 현황에 따르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최대 법인으로 올라와있으며 삼동회, 한기장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대한예수교장

175개 시설 보유...전국 최대

복지 노하우 인력풀 갖춰가

관리 감독 어려움은 상존

로회총회한국장로교복지재단,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등이 뒤를 잇고 있다. 2015년 현재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삼동회가 97개 산하시설을 두고 있고 한기장복지재단은 120여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전국 최대 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그간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대상별 다양한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경쟁력이 주요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세종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수탁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복지센터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주간 보호센터, 노인복지관, 재활치료실, 점자



4월 개관 예정인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운사가 운영 지원 사찰로 나설 예정이며 인근에 건립 추진 중인 불교종합타운과 함께 포교사업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도서관, 아동 상담센터, 영유아플라자, 여성취업상담센터 등을 총망라해 들어서게 되는 곳이다. 그만큼 관련시설 운영 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운영계획, 시설별 예산서, 센터 발전방안 등을 열흘 안에 준비하려면 탄탄한 데이터 기반도 구축해놓아야 한다. 때문에 이번 위탁운영 공고에 지원했던 곳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비롯, 단 2곳 뿐이었다.

세종시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센터장 내정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종합복지지원센터 수탁자 모집 신청자격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재단의 공신력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복지사업을 통한 불교계의 사회참여 역시 활발해진다는 뜻. 불교계가 전방위적으로 시설 확장에 뛰어들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역시 돈독해지는 효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시설장을 맡을 가능성도 커지면

서 불교사회복지인력 확충의 견인차 역할도 푹푹히 하고 있다.

다만 관리해야할 시설이 늘어나면서 지도점점의 어려움은 늘 상존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산하 시설 한 곳에서 발생한 문제가 재단 전체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하시설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효력을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수탁에도 강릉시장에인종합복지관 보조금 부당 수령 논란에 휩싸인 전력을 일부 언론에서 문제삼아 세종시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관련 사건은 강릉시가 복지관 수탁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부당수령 등이 있다고 판단해 재단측에 주의, 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한 사건으로 이후 검찰은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불 수 없다고 결정내린 후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미얀마 더포아 정혜 학교 준공

정혜사-지구촌공생회 협력... 50개 교육 시설 증 최대 규모

전주 정혜사 비구니 스님들의 염원을 담은 더포아 정혜학교 준공식이 3월 9일 미얀마 양곤 외곽 세인페지아웃마을에서 진행됐다. 학교는 지난해 8월 기공식 후 7개월만에 완공됐다.

사원내부에 있던 학교는 사원 인근으로 이전돼 교실 12칸, 화장실 8칸 및 급수시설을 갖춘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졌다. 유치원, 초중등 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200여명의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예정이다.

준공 전 더포아사원학교 학생들은 대나무 기둥에 야자수 잎으로 이루어진 간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 왔다. 열악한 시설 탓에 비바람이 부는 날이면 수업을 할 수가 없었으며, 그나마도 사원 내부에 위치해 있어 잦은 행사나 의식으로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더포아사원학교는 미얀마로 성지순례를 갔던 정혜사 주지 지섭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 스님들이 지난해 4월 지구촌공생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1억 5천만원의 후원해 지어졌다.

더포아 정혜학교는 지구촌공생회가 8개 국가에 지원한 50개 교육시설 중 최대 규모. 정혜사 사부대중의 후원에 이어 사원 인근 3,500여명의 학교부지와 전기 공사 비용 일체를 부담한 미얀마인 더 포아 씨, 학교 진입로 건립에 적극 나선 마을 주민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월주 스님은 준공식 기념사를 통해 "더포아 정혜학교의 준공은 수많은 후원자와 활동가, 지역 주민들의 자비공덕이 함께 빛어낸 부처님의 가피"라며 학교건립에 함께해 준 모든 이들의 노고에 감사했다.

이어 정혜사 주지 지섭 스님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쳐 지구촌의 훌륭한 리더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이루는 주역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이백승 미얀마 한국대사를 비롯해 지역 관계자 등 약 5백여명이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염원으로 이루어진 미얀마 더포아 정혜학교가 3월 9일 준공식을 가졌다.

댄서 꿈꾸는 저소득 청소년 지원

청솔복지관-댄스학원과 협약 체결... 무료 댄스 교습

청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월도)이 3월 10일 분당 무브댄스학원과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한 무료 댄스교습 프로그램 '댄싱SIX' 협약을 맺었다.

분당 무브댄스학원은 방송댄스, 몸치탈출, 다이어트댄스 등 다양한 댄스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학원.

무브댄스학원 정은주 원장은 "평소 춤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진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꿈을 접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복지관 측에 무료 댄스교습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학원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가르쳐 아이들 꿈을 지켜주겠다"고 덧붙였다.

'청솔주민문화센터 댄싱SIX'는 2015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이 3월 10일 분당 무브댄스학원과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한 무료 댄스교습 프로그램 협약을 맺었다.

년 4월부터 둘째, 넷째 주 목요일 16시부터 17시까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동화나라옹달샘, 은평구 사업 지원 받아

신사종합복지관 소속 어르신 동화구연 단체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원) 어르신 동화구연 봉사단체 '동화나라옹달샘'이 서울 은평구 마을사업 지원을 받게 됐다. 복지관은 동화나라옹달샘의 '우리 마을에 꿈을 주는 행복발전소'가 은평구 마을사업에 선정돼 3백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3월 18일 밝혔다.

동화나라옹달샘은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단체로 6년 동안 지역 아동들을 위해 동화구연을 해왔다. 어르신들 모두 동화구연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빅북(큰 동화책)을 만들어 어린이집 아동들이 책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번에는 창작 그림자극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빅북을 이용, 놀이에서 동화구



동화나라옹달샘 소속 어르신들이 동화구연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

연을 진행함으로써 책 읽는 문화를 마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기도 하다.

앞으로 봉사단은 동화구연에만 머물지 않고 아동극, 그림자극 등 활동분야를 넓힐 생각이다.

배현진 기자

대학생-어르신, 정 나누며 '돈독'

옥수복지관, 가정방문 '애틀지 가득한 집' 진행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센터장 상택)는 3월 7일 대학생연합봉사 동아리 코코볼(cocobol) 봉사단과 함께 어르신 가정방문 활동 '애틀지 가득한 집'을 진행했다.

'애틀지 가득한 집'은 지난 2010년부터 진행돼 온 1·3세대 방문 매칭 프로그램. 대학생 봉사단이 조를 이루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 말벗서비스 등을 통해 정서지원에 나선다.

올해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신규 봉사자와 기존 봉사자 40여명이 등록했다. 이날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받은 봉사단원들은 향후 1년간 활동에 대해 논의하며 봉사활동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서도 공유했다.

이러 봉사자들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는 3월 7일 대학생들과 함께 어르신 가정방문 활동을 진행했다.

어르신 가정에 부름을 나누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보냈다.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장 상택 스님은 "3년 이상 만나면서 어르신들과 봉사단원이 어느새 손자 손녀처럼 각별한 사이가 됐다"며 "이를 통해 어르신 고독사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재)대한불교일봉선교종 附設

일봉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1기 범음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봉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고 이타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외 기타의식)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복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2년 졸업)

- 개 강 : 2015년 양력 3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봉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제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3매
- 접수기간 : 2015년 3월 24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

※ 특 혜 : 1기생 교육비 무료

實相寺禪詩碑

祈國清象雲集

燃香燭釋禮三更

願蒙諸佛神明力

一鵬徐保壽詩書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9038-0908 학과장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신영동 93-1) 일봉선원 교무처